

신안 '전국 새우란(蘭) 축제' 개최

1004섬분재정원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신안군은 우리나라 자생란인 새우란을 주제로 하는 '2024 전국 새우란 축제'를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1004섬분재정원(압해읍)에서 개최한다.

새우란(蘭)은 뿌리의 마디 모양이 새우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강인한 생명력으로 겨울철 눈보라를 이겨내고 한 송이 꽃을 피우며 봄의 서막을 알리는 애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우리나라 자생란의 일종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국내외 새우란 품종 전시관 운영과 신안군농업기

술센터에서 10년 이상 배양해 재배한 여러 종류의 새우란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사군자(梅蘭菊竹)테마 축제를 추진하는 4개 시군(광양시, 신안군, 담양군, 함평군)이 운영하는 사군자 테마관도 운영한다. 특별전으로 국립생태원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후 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보존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꾸밀 예정이다.

/신안=김숙희 기자

무안, 고령농·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충전식 분무기·예취기

무안군은 오는 15일까지 올해 신규사업인 '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충전식 분무기·충전식 예취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고령·여성농업인이 가벼운 충전식 분무기와 예취기 사용을 지원해 농작업 능률 향상과 소규모 경작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비·자부담 1:1 비율로 농가당 1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농산물 실제 경작하는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농업인이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고령농가·영세농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완도 '제13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올해 스마트 농업반 운영... 농업 발전 인재 양성

완도군은 지난달 28일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제13기 완도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심만섭 총동문화장 및 기술별 동문화장, 입학생 35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학식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기소개와 학사 일정을 공유하고, 김희연 강사의 '농업인대학 교육생의 건강관리' 특강이 진행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스마트 농업반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친환경 재배 기술, 토양 및 병해충 방제 기술, 유통·마케팅,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법률 이론, 현장 실습, 우수 농가 견학 등 총 25회, 111시간의 학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군농업인대학은 지난 2011년 친환경 농업반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과정을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총 4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스마트 농업반 과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완도 농업 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면서 "군에서도 농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영암, 올해 개조 전기차 주행안전성 실증 완료한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2년 차 순항

내년 전국 상용화 전망... 미래성장 고용창출

영암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순항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미래차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22년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암군은, ㈜라라클래식모터스 등 6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비 92억원, 지방비 46억원, 민자 19억원 등 총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영암군을 중심으로 목포시와 해남군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개조 전기차 주행, 제작 실증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안으로 개조 전기차의 주행안전성 실증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를 감당하는 주행안전성 실증이 한창이다.

동시에 영암군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1단계 운전면허 시험차량 전기차 개조, 2단계 택배 화물차량 전기차 개조, 3단계 전기차 개조 표준화를 거친 다음 해외수출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조 전기차 전국 상용



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30년까지 3,580억원의 매출과 300명 고용창출 등 직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업 초기 전망됐다.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및 개조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으로 연 1,500억원의 개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7,400억원의 택배 화물차와 운전면허 학원 노후차 국내 시장, 6,150억원의

동남아 수출 중고차와 클래식카·캠핑카 시장에서도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영암군은 내다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조 전기차 사업은 지역의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자리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 특구 참여 기업 유치로 개조 전기차 시장을 영암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양대체전 대비 '1숙박업소-1담당관제' 본격 가동

요금표 미게시·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

목포시가 제53회 전국소년체전·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 1숙박업소당 1담당관(팀장급 직원)을 지정하며 숙박업소 관리체계를 재정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관내 소재하는 306개소의 숙박업소 중에 양대체전 선수단, 임원진 등이 활용 가능한 숙박업소 171개소(5,704실)를 선별, '1숙박업소-1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8일 교육과 함께 본격적인 활

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숙소별 담당관은 목포시 산하 전부서 팀장급으로 지정, 지정된 숙박업소를 매주 방문해 선수단 예약현황, 영업신고 및 요금표 게시 유무 등 숙박업소 영업주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숙박업소별 지정 담당관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시 보건소 단속반의 추가 점검

과 계도, 단속으로 보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목포시는 체전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숙박예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소별 담당관을 통해 체전 참가 선수, 가족, 관광객 등 사전 예약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광지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 200여명의 숙박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진도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도군청 산림휴양과(☎061-540-3773)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문의하는 임업인을 위해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직불금 해당 임가가 직불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해남읍 원도심에 '땅끝 초콜릿 마을' 조성한다

테마특화거리 조성... 지역특산물 활용 수제 초콜릿 체험·판매

해남군은 '땅끝 초콜릿 마을'을 지역 브랜드로 내걸고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땅끝 초콜릿 마을은 '연인들의 성지, 초콜릿 체험과 문화가 있는 곳, 땅끝 초콜릿 마을'을 핵심 콘셉트로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테마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상가들은 초콜릿 복합매장화

를 추진하고 신규 창업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 특산물과 초콜릿을 결합해 해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수제 초콜릿을 개발, 판매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콜릿을 주제로 한 상권 조성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색있는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2030 세대와 어린 자녀가 있는 3040 가족을 주 타겟으로

로 해 수제초콜릿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로 관광명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올 해부터 초콜릿 점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고 상인 교육이 시작되며, 앞으로 5년간 초콜릿 관련 공동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특화상품 개발, 여행객 유입 이벤트 행사와 마케팅이 추진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해남군)에 기부하고
해남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2023. 1. 시행)

쉬운 기부 해남군 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해남에서 준비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1석3조 기대효과

기부문화 확대 →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